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며’ 예술언어로 구현한 역사의 단면

●이진경 개인전, 30일까지 오월미술관·무등공부방

벽면을 가득 메운 이름과 그림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얽힌 역사적 실체들을 마주한다. 대상과 공명하며 그 기운을 그리고 혼을 달래는 전시는 단순히 예술작품을 거는 양식에 머물지 않으며, 제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광주향일운동, 주한미군기지, 위안부, 5·18민주화운동 등 근현대의 상처입은 역사를 주제로 마련된 전시가 펼쳐진다.

이진경 작가 개인전 '다시 살으라-오는 봄'이 오는 30일까지 오월미술관(동구 문화전당로 29-1 2층)과 무등공부방(서구 화정동 128-13)에서 열리고 있다.

이진경은 그동안 환경·생태·지역·근대사·문화·정치 등 삶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예술언어로 구현해왔다.

이번 전시 '다시 살으라-오는 봄'은 지난 6월 방탄한 광주제일고 독립운동 기념탑이 시작점이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한 소년들 속 찾은 외조부의 이름은 이진경에게 '광주'의 의미를 불러내고 작업으로 나아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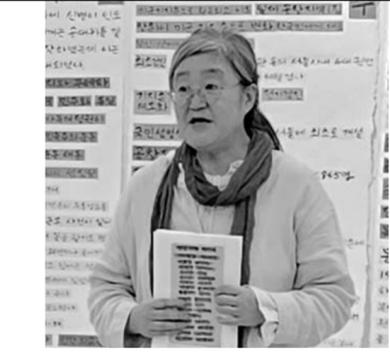
작가는 2021년 이응노의 집에서 펼쳐진 '민민산-헤치고 흐르고', 2022년 '민민산-눈은 나리고'를 통해 동화와 4·3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수레바퀴 속 희생

항일학생운동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저항의 근현대사 속 아나간 이들 이야기

되거나 흔들림 없이 저항한 이들을 소환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의 '다시 살으라' 전시 역시 그 맥락을 이어 받는다.

광주 전시에 앞서 춘천에서 열린 '다시 살으라-빈들 속에서'를 통해 작가는 레고랜드 성탑 속 고요히 묻혀있는 고대국가의 유적들에 주목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양공주', '혼혈아', '6·25' 등 작품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에서 미군 주둔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안에서 훼손되고 잊혀진 우리역사의 단면을 재해석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제사를 지냈다.

광주 '오월미술관'과 '무등공부방' 두 군데서 진행되는 '다시 살으라-오는 봄'은 춘천 전시 작품을 포함하



면서도 보다 확대된 규모로 펼쳐진다. 광주향일학생운동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저항의 근현대사 속 '오는 봄을 기다리며' 아나간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붉은 종이에 써내려간 5·18 전남도청 희생자들의 이름, 광주향일학생운동으로 촉발된 전국 항일학생운동 학교 명단, 일본제국주의 위안부 동원 국가 등 수도 없는 이름들을 적은 작업들은 그동안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역사의 빈칸을 채우고 그 존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진경은 작가노트에서 현재를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며' 시대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직도 이 땅은 불구덩이다. 묻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데, 어찌 살아야 하는가? 오는 봄을 기다리며 숨을 다시 고르고 눈을 바로 뜬다."

오월미술관 관계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나간 이들에 대한 이진경의 작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며 "이를 다시 세우고 보듬어 안는 작가의 생동하는 기운을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유아기 자녀와 부모, 문화예술로 소통하세요”

ACC재단, 12월 예술 공감 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다음달 15일까지 ACC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진행되는 '2024 ACC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 공감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 공감 워크숍'은 예술을 매개로 육아 스트레스를 겪는 양육자의 마음을 살피고, 가족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3-6세 자녀를 둔 가족

을 대상으로 한다.

워크숍은 ▲행복 예술가 홈(Home) ▲춤추는 주사위 ▲도깨비의 마들렌: 우리 가족의 마법 같은 순간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각기 독창적인 주제를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먼저 스윗뮤직가든의 '행복 예술가 홈(Home)'은 전문 연주자와 함께 즉흥 음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감정을 나누는 창작 워크숍이다.

논고덕바다가 제안하는 '춤추는 주사위'는 예측할 수 없는 주사위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여

행하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마스크를 창작하고 이를 활용한 액션 퍼포먼스를 통해 가족의 일상에 새로운 감각을 더한다.

이어 그라운드파고의 '도깨비의 마들렌: 우리 가족의 마법 같은 순간'에서는 아기도깨비가 행복한 추억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무용극 '도깨비의 마들렌'을 감상하고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을 스토리북과 퍼포먼스로 기록한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 8월 전국 문화예술기획자와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 공감 워크숍' 공모를 진행했다.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이들 3개 프로그램은 11-12월 ACC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광주의 근현대사를 톺아보다

22-24일 시립극단 제1회 창작희곡 당선작 '양림 in 광주' 무대

광주시립극단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양림'이 연극 무대로 펼쳐진다.

오는 22-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시립극단 제23회 정기공연 '양림 in 광주'다.

2021년과 2022년 입체낭독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양림'이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신임 예술감독의 각색을 거쳐 무대화되는 것. 김하정 극단 유포씨어터 대표가 공동 연출을 맡았다.

양림을 배경으로 조선의 성녀 테레사로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의 양자인 미망인 요셉이 주인공인 이야기다. 요셉이 양어머니를 잃고 양림을 떠나 다 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양림 in 광주'는 버림받은 자가 구원자가 돼 돌아오는 성서의 창세기 요셉 이야기와도 닮아있다.



작가적 상상력과 탄탄한 서사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광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원광연 예술감독은 "이번 연극 공연을 통해 광주의 근현대사를 톺아보고 그 역사 속 주인공 요셉의 삶과 선택의 과정에서 의로운 일에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선택해온 광주 정신을 보여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국립극단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내달 5-7일 ACC 예술극장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 ACC 퍼니' 마지막 작품으로 다음달 5-7일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국립극단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를 올린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는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국립극단이 새롭게 각색해 청소년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전쟁터와 극장, 수도원을 넘나들며 넓게 펼쳐진 원작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상상력을

원작에 담긴 독설과 유머, 재기 넘치는 대사와 화려한 시구로 가득 찬 낭만적 사랑은 더욱 경쾌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원작에서는 주인공 시라노의 안타까운 사랑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관계와 인물에 초점을 맞춰 네 사람의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인공 네 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해볼 수 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네 주인공의 이야기는 청소년 관객뿐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관객들은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사랑의 모습에 스스로를 비추며, 진정한 자신을 오히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올 연말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낭만극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대중 친화적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